

중구 '남산이음' 지도 제작... 51개 코스 한눈에

중립 산티아고 등 동별 이색 지역 가득... 전자책 제작도

서울시 중구가 구민 정책 만족도 1위에 빛나는 '남산자락숲길'을 누구나 손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중구 전역 총 51개 코스를 담은 안내지도 '남산이음'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남산자락숲길은 중구 어디서나 15분이면 닿는 '일상 속 숲세권'으로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안트리까지 이어지는 총 5.14km 구간의 숲길이다. 흙길과 툇길로 조성돼 유모차·휠체어·노약자·임산부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무장애 길로, 숲길 안에는 유아숲체험원·황토길·전망대·자전거대 톨게이트 등이 이어져 재미를 더한다.

이번에 제작된 '남산이음' 지도는 15개 동에서 출발해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다양한 동네길을 담았다. 각 동별 코스와 진입로·주요 경유지·대중교통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았다. 여기에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스마트서울맵과 연동돼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

운 코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주민과 함께 발굴한 코스들은 동별 생활권과 특색을 반영해 누구나 내 집 앞에서 남산 숲길에 닿을 수 있는 일상 속 숲길로 안내한다.

중구 서쪽에 위치한 △소공동 △회현동 △명동 △중립동은 서울의 근현대사를 품은 지역이다. 덕수궁·환구단·명동성당·송례문·손기정공원 등 역사 명소를 따라 걷다 보면 남산자락숲길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도심 속 하이킹의 재미를 더한다.

여기에 북창동 먹자골목·남산둔개스거리·중립리길 등 '미식의 즐거움'까지 더해지며 하이킹과 맛집 탐방이 어우러지는 도심 여행 코스로 손색이 없다. '남산 인생샷 로드' '근현대사 탐방 코스' '외국인 하이킹 코스' '중립 산티아고' 등 MZ세대 진입로·주요 경유지·대중교통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담았다. 여기에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스마트서울맵과 연동돼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

운 코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중구가 '남산자락숲길'을 누구나 손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중구 전역 안내지도 '남산이음'을 제작했다. 중구

도 제작 예정이다. 중구 중앙에 위치한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은 전통 산업·골목상권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서애로·뱃길·남산한옥마을·힐지로·장충단공원·장충체육관·태극당·중앙아시아거리 등 길음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풍경을 지나 남산자

락숲길과 만난다.

'뱃길·뱃길·뱃길' '광희문 컬러맵' '동대문 소풍맵' '을지로 맛집코스' 등 코스마다 특유의 활기를 오롯이 담았다. 중구 동쪽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황학동은 남산자락숲길과 가장 가까운 주거 생활권이다. 서울시 최초 모노레일인 대현산 모노레

일·다산성곽도서관·중앙시장·백학시장·약수시장 등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코스들로 구성됐다. '다산성곽 역사길' '합동동 마실길' '청계남산길'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산책로다. 구는 주민들이 만든 '남산이음' 코스 중 동별 대표코스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했다. 전자책 '숲세권 명품 중구에서 삶을 누리다'는 각 장소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내 읽는 재미를 더했다. 주요 장소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와 연동되는 아이콘을 삽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책은 중구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코너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남산자락숲길은 먼 숲이 아니라 내 집 앞에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일상의 숲이 됐다"며 "이번 '남산이음' 지도를 통해 더 많은 주민과 시민, 관광객들이 봄날 남산에서 걷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금천구가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할 도시제조업체를 모집한다. 금천구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금천구, 최대 900만 원 지원

서울시 금천구는 17일까지 5대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노후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업체당 작년보다 400만 원 증액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 업체는 5개 도시제조업종으로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등이다.

지원 항목은 소화기·화재 감지기·누전 차단기 등 안전관리 품목 10종과 화장실 개선·공기청정기 등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16종, 작업 의자·미싱 보조테이블·운반기 등 작업능력 향상을 위한 9종 품목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 소재한 5대 도시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실제 조사·컨설팅 및 교육·최대 3년간 사후 관리·실태측정 등의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제 및 지방세 납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 또는 반지하로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분진·조도·소음·전기안전 등의 평균 기준 이하 업체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는 평가를 거쳐 우선 지원한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서대문구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무료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 무료 진로·진학상담 만족도서 90% 이상 긍정적

서울시 서대문구는 구가 운영하는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입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교육 기반의 진학 지원 모델'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2023년 6월 개소 이후 △입시 상담 △학습유형 진단 검사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을 무료로 운영하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입시 시즌 상담을 받은 학생 중 설문에 응답한 100명 가운데 78명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명은 제도전에 나서거나 새롭게 진로를 설계 중인데 입시 상담 시 대학 진학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장기적 진로까지 함께 고민하며 방향을 모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만족도 조사에서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응답이 95% △'입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2%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은 97%에 달했다.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는 학교 수업 이후에 편리하게 상담받도록 이달부터 화~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상담 시간을 연장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마포 숨은 명소·맛집 순환버스 타고 떠나요”

내달부터 1일 12회 운행... 요금 성인 5500원·어린이 3000원

서울시 마포구는 주요 관광명소와 11대 상권을 연결하여 골목상권을 살릴 '마포순환열차버스'가 5월1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

1월25일 제작식을 시작으로 4월까지 시범 운영 중인 '마포순환열차버스'는 그간 여행사·숙박업체 등 관광업계 종사자와 시민·지역 상인 등 여러 분야의 체험단들이 탑승했다.

탑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류장 등 시설 정비와 시스템 개선에 노력했다.

각 정류장에 도착할 때면 영어·중국어·일본어의 외국어 방송이 정류장을 설명하며 인근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안내 멘트와 사진이 나온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하며 무료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누리집'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예약제로 운영한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중기 기관차 모양과 귀여운 마스코트 '깨비, 깨순이'가 그려져 운행 동안 승객기를 뿜내며 기적 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6인승 전기버스로 꾸며진 '마포순환열차버스'는 특히 대형 버스가 가지 못한 골목 위주로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특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마포반려동물캠핑장', '난지캠핑장' 등은 평소 대중교통으로는 가기 어려운지역을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통해 편리하게 갈 수 있다.

운행 코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출발점으로 17개의 정류소에서 내리고 타

면서 골목상권의 숨겨진 맛집과 이색적인 공간들을 탐방할 수 있다.

또한 아현시장·도화꽃길·용강맛길·열리대흥숲길·레드로드·하늘길·연남끼리끼리길·망원시장과 망리단길·망원월드컵시장과 방울내길·성미산문화길·성산문화길까지 마포의 11대 상권을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60분 간격으로 1일 12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에만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 요금은 성인 5500원·청소년 3500원·경로자 3000원·어린이 3000원으로 1일 종일권을 구매하면 추가 비용 없이 17개 모든 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다.

아울러 티켓은 '레드로드 R2'에 있는

체험 이벤트를 마련했다. 가장 공들인 부분은 곳곳에 설치된 야외도서관이다. 힐링타운에 위치한 '책섬터 방앗'은 어린왕자 테마의 조형물·북·침타그늘막을 꾸미고 도서 큐레이션과 그림책 읽어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카페포스트 잔디마당·유아숲체험장 내 냇가·작년 새로 개장한 피크닉장 등도 야외도서관으로 변신한다.

문화 공연과 살거리·먹거리도 풍성하다. 철쭉동산 앞 힐링쉼터에는 메인 무대를 설치해 기간 중 주말마다 공연을 펼친다. 19일 '나비 날리기' 개막 퍼포먼스로부터 서커스·버블쇼·김떡수패사물놀이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27일 오페스트라·팝핀현준·박애리의 합동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푸드트럭은 평일 3대·주말 5대를 운영하고 22개의 힐링마켓에서는 생활용품·수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특히 마켓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사회적기업·청년기·제자활기업 등이 참여해 이들이 지역 문화축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의미를 더한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마포구청앞에 대기 중인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승객을 맞이하며 운행 준비하고 있다. 마포구

마포관광정보센터 대표안내소와 마포순환열차버스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는 마포구의 주요 명소와 숨은 골목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된 관광객이 마포지역 곳곳으로 퍼져나가 마포구 전역이 관광자원화되고 골목경제가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불암산 분홍 물결 넘실... 15~27일 '철쭉제' 열린다

공연·체험 등 다양한 구성
소상공인 참여 상생 도모

서울시 노원구가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추어 15일부터 27일까지 '2025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불암산 힐링타운에 '철쭉동산'을 조성한 이후 올해 4회째를 맞는 철쭉제는 노원을 대표하는 5대 축제 중 가장 먼저 선보이는 봄 축제다. 3회 차였던 작년에는 13일 동안 23만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평일에 도 1일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해 지역사회에 안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는 이번 철쭉제 역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는 한나절을 머무르며 즐길 '체류형' 축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화나라 테마를 일컫는 힐링타운 전반의 경관 설치 △다양한 특별 체험 프로그램 △축제 기간 중 문화공연·힐링마켓(플리마켓)·푸드트럭 등을 구성했다.

힐링타운 전반에 걸쳐 조형물과 장식



노원구가 15일부터 27일까지 '2025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시민들이 만개한 철쭉 꽃길을 따라 산책하고 있다. 노원구

으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힐링타운 입구부터 형형색색의 차광막·산림치유센터 초입의 하늘 우산 장식 등은 경관 개선 효과와 함께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 행사장과 프로그램 부스가 넓게 펼쳐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성 높은 종합 안내도를 배치해 방문객의 편의를 돕는다.

힐링타운의 각종 여가시설들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정원·정원지원센터·산림치유센터 등 각각 시설마다 방문객들이 손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마련했다. 가장 공들인 부분은 곳곳에 설치된 야외도서관이다. 힐링타운에 위치한 '책섬터 방앗'은 어린왕자 테마의 조형물·북·침타그늘막을 꾸미고 도서 큐레이션과 그림책 읽어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카페포스트 잔디마당·유아숲체험장 내 냇가·작년 새로 개장한 피크닉장 등도 야외도서관으로 변신한다.

문화 공연과 살거리·먹거리도 풍성하다. 철쭉동산 앞 힐링쉼터에는 메인 무대를 설치해 기간 중 주말마다 공연을 펼친다. 19일 '나비 날리기' 개막 퍼포먼스로부터 서커스·버블쇼·김떡수패사물놀이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27일 오페스트라·팝핀현준·박애리의 합동 공연으로 막을 내린다.

푸드트럭은 평일 3대·주말 5대를 운영하고 22개의 힐링마켓에서는 생활용품·수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특히 마켓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사회적기업·청년기·제자활기업 등이 참여해 이들이 지역 문화축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의미를 더한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용산구 '스마트맵' 구축... 혼잡도 실시간 확인

5분 단위로 인구 밀집도 분석
27종 공공시설 위치정보 제공

서울시 용산구가 실시간 스마트맵 시스템을 구축하고 3일 일반에게 공개했다. 실시간 스마트맵은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인파 관리를 지원하면서 구민들에게 구정 관련 직관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산 실시간 스마트맵은 용산구청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접속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유동인구 △위치 정보 △공사 현황 등 3가지 내용으로 꾸렸다. 향후 지도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실시간 유동 인구는 통신사의 이동통신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5분 단위로 최신 정보를 수집한다. 지역 내 16개 동과 △이태원 관광특구 △해방촌 △경리단길 △용리단길 △이촌한강공원 등 14곳 주요 장소에 대한 인구 밀집도와 1시간 전 대비 증감률을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파악하고 변화 추이를 예측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인파 관리와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며 "더불어 유동인구의 성별과 연령별 통계도 확인 가능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도 설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위치 정보에서는 분야별 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용산구 전체나 특정 행정동 내 △공공시설 및 안전 △교육 △문화 △체육관광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지역개발 △환경 보호 △교통 및 물류 등 8개 분야 위치 정보를 담았다. 분야 아래 어린이집·청소년공부방·도서관·문화공간·빈틈점·공영주차장 등 27가지 세부정보로 나뉜다.

공사 현황에는 지역 내 진행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보를 표시했다. △건축 허가번호 △공사 기간 △위치 △규모 △시공사 및 감리자 △담당 부서 등 내용으로 구성된 구민 편의를 높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구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확장해 스마트한 도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